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찬양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race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성탄 감사주일 Christmas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천사 찬송하기를(찬126/새126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손석환 집사 2부/오세영 장로 3부/송용훈 집사 4부/김에스더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할렐루야 (G. F. Handel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호세아(Hos.) 9:6-14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1:29-34
-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L AFC(10)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3): **하나님의 어린양**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2,3부/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참 반가운 신도여(찬/새122장)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기쁘다 구주 오셨네(찬/새115장)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의사 예수님

Dr. Jesus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하나님의 이름에 '여호와 라파'가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치료해 주셨습니다. 의대를 나오신 분도 아니고, 병리학을 공부한 분도 아닌데, 만병의 의사라는 별명도 가지셨고, 수많은 환자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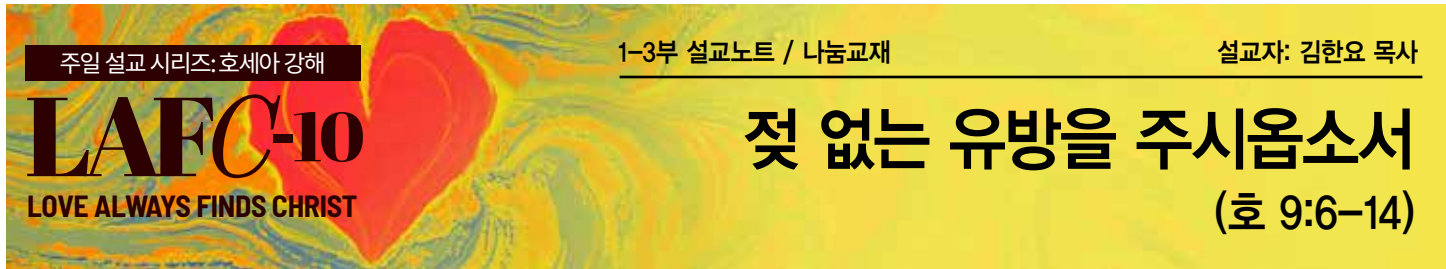
성탄절은 하나님이 수퍼 의사가 되어 하늘에 뚝 떨어진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돌봐 주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어린 아기로 오신 날입니다. 추위에 옷을 감싸 주어야 하고, 모유를 먹여야 살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의 환영을 받으며 태어났지만, 어른들은 고생 많은 세상에 태어난 줄 알고 운다고 새생명의 기쁨을 에둘러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생 많은 세상에 태어나신 줄 알고 울면서 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캐롤 찬양은 부르지만, 실제로 고생이 많은 세상에 할 일 많아서 하나님 본체인 분이 아기로 오신 날입니다. 왜 수퍼맨으로 오시지 않고, 우리처럼 울면서 아기로 태어나셨을까요? 수퍼 의사나, 수퍼 맥가이버로 오셨으면 더 좋은 것이 아니었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 그 이유를 히브리서 2장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즉, 크리스마스는 고난 당한 우리를 능히 돕기 위해서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 한 분 한 분을 진료하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대부분 환자는 의사를 만난 후 병의 위중함 때문에 때론 겁에 질려 있고, 수술 받고 입원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 일을 정리해야 하고, 사장이라면 일도 나갈 수 없어서 대신 일할 사람도 세워 놓아야 하고, 가정 주부라면 살림도 누구에게 부탁해야 하고, 아빠라면 뒷마당 정리하고 쓰레기 내 보내는 것도 부탁해야 하고... 마음이 여러모로 심란할텐데, 의사 예수님은 환자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걱정하지 말라" 위로하시며, "내가 그래서 도와주러 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수많은 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이 진료하는 환자마다 감정 이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 질병의 전문가라도, 실제로 그 병을 앓아본 적이 없다면 환자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의사 예수님은 전문의이면서 본인이 그 질병을 앓았고, 그 아픔도 너무 잘 이해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한 마디 "걱정말라"는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실 뿐 아니라, 능히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기 예수로 오신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One of God's names is 'Jehovah Rapha.' It means 'healing God.' Jesus Chris, God who came to earth on Christmas, healed endless number of people in his lifetime. He healed them through nights. He did not go to medical school, nor studied diseases, but he was called a doctor for all sicknesses. Multitudes of the sick came to see him.

Christmas is not a day when God, as a super doctor, dropped from the sky. Instead, it is a day he came as an infant much needed of caring. He came as a weak infant that needed to be wrapped from the cold. His only survival was through a mother's milk. We were all born into this world, crying. We were welcomed by our family. But adults express the joy of new life uttering that the babies cry because they know they have been born into a world full of hardship. The day our Jesus, knowing he was being born into a world of hardship, came into the world crying, is Christmas. Although we sing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it is a day God came in his very essence as a baby because there's so much work to be done in this world of hardship. Why did he come as crying baby like us and not a superman? For a quick moment, we may think it would have been better if he came as a super doctor, super MacGyver, but the reason is in Hebrews 2:18. "For because he himself has suffered when tempted, he is able to help those who are being tempted." In other words, Christmas is a day that God came to help us, who are suffering, through his own suffering and temptation.

Let's imagine Jesus in a white gown treating patients one by one. Most patients, after meeting with a doctor, are fearful of serious illness. They put their daily life in order because of surgery and hospitalization. If you're a president of a company, you find people to fill in during your absence. If you're a housewife, you need to find help to run the household. If you're a dad, you ask someone to help with yard work and to take out trash... When many thoughts run through our minds, Dr. Jesus understands our situation, comforts us and tells us "Don't worry", "That's why I came to help." Doctors, who deal with numerous patients every day, cannot possibly empathize with every single patient they treat. Even if you're a specialist, when you have never suffered the illness, you do not really understand the patient's mind. However, Dr. Jesus is a specialist and has suffered that illness. He understands the pain very well. His words, "Don't worry" is different than human words. It is because not only does he know our pain, but he is able to heal it. That is the Christmas message of baby Jesus.



1. 설교 중 칼 매닝커(Karl A Menninger) 박사의 말에 동의하나요?

적용하기



2. 죄로 말미암아 상실된 인간성을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 6절:
- 7절:
- 9절:
- 10절:
- 12절:

3. 호세아 선지자의 '배지 못하는 태와 젓 없는 유방'을 달라는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4. 이해할 수 없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살펴 보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1) 엘리야 선지자의 '차라리 죽기를 구하며' 드렸던 기도(왕상 19장)
- 2) 요나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간구하는 기도 (욘 4장)
- 3)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달라는 기도(출 32:31-32)

5.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참고 구절을 찾아 읽으며 다시 새롭게 마음에 새깁시다. (참고/ 히 2:18, 창 4:10)

■ 적용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참 반가운 신도여(찬/새122장)

선교
기니비사우

기니비사우를 향한 열정



'기니비사우 나라는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요?'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익숙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약 40여 시간의 비행이 예정되었던 이 아프리카 땅을 품고 우리 팀은 기도했지만, 이번 단기선교 일정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베델교회에 선물로 허락하신 기니비사우 단기선교는 2013년에 첫 비전 트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보고되었습니다. 유용한 선교사님과 유 글로리아 선교사님 두 분은 그 땅의 백성들을 섬기시며, 지난 2018년에는 베델교회의 후원으로 까라쉬라는 섬에 '땅끝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내륙 지역에서도 맨땅가 부족과 빠짜아라 부족에게 복음이 전해져 현지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번 선교팀이 계획하고 함께 증보하며 기도로 준비한 지역은 발렌티 부족이 사는 곳입니다. 다섯 명의 팀원이 구성되어 릴레이 금식기도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 나라의 정치적 혼란과 쿠데타로 인해 저희 선교 일정은 당분간 취소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에볼라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TAP 항공사 스트라이크 등 여러 문제로 단기선교 일정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방문하려고 계획한 발란다 종족 마을에는 4년 전 이슬람 종교가 들어와 포교 활동을 하다가,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 이슬람 사원의 지붕이 모두 날아가고 건물이 크게 파손되자 그 마을의 종족들이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모든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을 쫓아버렸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저희 단기선교팀과 함께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 의료, 약품, 안경, 사진 사역 등을 준비하셨습니다. 저희는 선교사님을 도와 거리를 다니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현지인들에게 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아름다운 사역들을 계획했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서는 그 시간을 무척이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팀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에, 저희 단기선교팀은 교회 선교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기회로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후원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니비사우 땅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저희를 그곳으로 보내주실 것을 고대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김종곤 집사



사역 후기
새가족

Soli Deo Gloria!



2025년을 돌아보며, 새가족팀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제 부족함을 신실한 동역자들로 채워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고, 사랑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합니다.

올해 새가족팀은 다섯 부서가 한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다섯 부서의 모든 팀원들이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새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처음 교회로 들어서는 새가족들의 발걸음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주차부, 이른 아침부터 환한 미소로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며 새가족들의 마음 문을 여는 영접부, 예배 후 새가족 한 분 한 분의 이야

기에 귀 기울이며 사랑과 믿음으로 동행해 주신 바나바부, 새가족 만찬을 아름답고 은혜롭게 꾸며 새가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장식부, 그리고 언제나 정성으로 풍성한 만찬의 식탁을 준비해 주시며 교제의 기쁨을 나누게 해 주신 만찬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랑과 기쁨으로 섬겨 주신 팀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했던 팀원들, 조용히 마음을 다해 이끌어 주신 목사님,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새가족팀은 많은 새가족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기대와 설렘을 안고 오시고,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눈물을 안고 오십니다. 우리는 그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의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잘한 것도, 부족한 것도 모두 주님께 맡

기며 2026년에도 우리 새가족팀 가운데 더 큰 사랑과 기쁨,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새가족팀원들이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은 제 마음에 평생 간직될 소중한 선물이고 자랑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Soli Deo Gloria!(오직 주님께 영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이상노 집사



사역 후기
식당

숨겨진 축복



처음 식당사역을 맡았을 때, 시간과 수고가 많이 필요한 사역이라 걱정이 되었는데 정신없이 지나간 1년을 돌아보니 천국을 미리 경험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말마다 새벽 어두움을 뚫고 출근했던 교회 부엌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함께했던 얼굴들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김밥 기계를 기부받는 축복을 주셨고,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집사님과 권사님이 김밥 자르는 기계와 파 썰는 기계도 기부해 주셔서 다른 해에 비해 팀원이 적음에도 감당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김밥 준비로 정신없이 분주한 주일 아침, 주방을 잠시 사용하려는 분들을 안전 문제로 돌려보내면서 몸과 마음이 힘든 때도 있었지만, 16명의 권사님과 두 명의 안수 집사님, 아내를 돕기 위해 식사팀으로 자원해 주신 두 남편 집사님들 덕분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어머니의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씨 고우신 권사님들과 성실하고 믿음직스럽게 새벽 5시부터 밥을 짓고 뒷정리 설거지를 담당해 주신 두 안수 집사님 덕분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주일날 자원으로 늘 나타나 주셔서 말씀하 주방을 제 정리해 주시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보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곳이 교회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이 부족할 때마다 대신할 일손들을 천사처럼 보내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하

심을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경험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소중한 순간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Taste of heaven'을 느낄 수 있었던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팀원들의 헌신을 보며 때에 따라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함께 성숙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식당 사역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숨겨진 축복을 하나하나씩 찾으며 믿음이 깊어졌던 훈련 과정 패키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안에서 팀원들과 맺은 소중한 인연과 타이밍에 대한 감사가 남습니다. 식당사역을 맡지 않았다면 너무나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부족한 팀장을 믿고 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팀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인규 장로



'우리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주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면...' 각각의 재료들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던 김밥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김밥은 도구였을 뿐, 말씀 안에서 저의 몸과 마음을 연단시키시고 정금같이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밥팀의 주일은 캄캄한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어둠을 뚫고 도착한 팀장님 부부가 어김없이 주방 문을 열며 불을 밝힙니다. Early Bird 당번인 권사님과 함께 어제 다 같이 준비

한 600인분의 김밥 재료들, 그리고 150인분의 무수비 재료들을 꺼내어 세팅하기 시작하고, 인기 폭발인 명란 삼각김밥 250인분의 양념도 제조합니다. 동시에 팀장 권사님은 언제나처럼 팀원들을 위해 고구마를 오븐에 넣고 과일을 깎기 시작합니다. 지치지 말라는 조용한 응원에 힘이 납니다. 무려 1,000인분 이상 분량의 쌀을 씻고 밥을 짓고 양념하시느라 윤집사님과 최집사님도 김 서린 안경에 모자와 앞치마를 장착하고 일과를 시작합니다. 권사님들이 김밥을 만드는 내내, 한쪽에서 무거운 밥 보자기를 한 통 한 통 꺼내어 대야에 메치고, 어제 볶아 놓은 통깨를 절구에서 직접 갈아 고소한 참기름과 소금을 더하여 고슬고슬한 최고의 밥을 짓습니다. 새벽 6시가 되면 11명의 김밥팀 권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팀장님의 기도로 김밥 사역이 시작되고, 2부 예배 전까지 단 1분도 쉬지 않고 숨 가쁘게 달려갑니다.

지난 1년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역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나눌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이 없이 섬기시는 봉사자들을 보며 도전받게 하셨습니다. 힘에 겨워 울고 싶을 때마다 말씀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지친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셨고, 무엇보다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황리나 권사



교회학교 사역 후기
교사 감사만찬

풍성한 은혜의 자리

매년 교사 만찬이 다가오면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음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 자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번 만찬을 통해 한 해를 되돌아 보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학생으로서 배운 모든 순간과, 선생님으로서 함께 섬길 수 있었던 시간들 모두가 큰 은혜였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Thank you, teachers!!



Jay Joo

교사로 섬기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번에 처음 교사 만찬에 참석하며 베델교회의 다양한 부서와 수많은 교사 및 TA들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테이블 세팅과 데코레이션, 맛있는 음식, 원활한 진행과 뒷정리까지 곳곳에서 교사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느껴졌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 됨을 경험한 이 시간을 통해 더 큰 책임과 사명을 품고,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차원재 집사

I had such a great time at the teachers appreciation banquet. The food was amazing, and we got to celebrate and learn about each educational ministry. The best part was to be able to gather with other teachers and TA's for a

time of fellowship and enjoy the event together. It was awesome to see how many people volunteer to teach the children at Bethel, and touching to hear the heartfelt student testimonies showing appreciation to their teachers, I'm really thankful that so many people are pouring into students every week and teaching them the word of God. Thank you to everyone who made the banquet possible!

Kevin Son



어릴 적 교회에서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귀감과 헌신, 그리고 영적 성장은 제가 기쁨으로 CIM

교회학교 CIM 간증
QTin

날마다 주시는 사랑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며 시작한 큐티는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있었고, 또 그것을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큐티를 하다 보니, 놀랍게도 읽고 묵상한 말씀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제 삶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저 또한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큐티가 습관이 되니, 제 마음이 하나님과 어긋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더라도, 다시 큐티 책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QT로 하루를 시작하니 오늘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할지 기준이 잡히고, 삶에 안정감도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큐티를 통해 저의 잘못을 보게 하시고, 위로로 채우시며, 삶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는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지아(11학년)



큐티를 시작한 지는 겨우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큐티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제가 원해서 책을 산 것이 아니라, 나눔 그룹 선생님께서 예배가 끝난 후 직접 선물로 책을 주셔서였습니다. 수련회에 갈 때마다 은혜를 받아 큐티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제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워서 망설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제가 큐티를 하도록 이끌어주신 것 같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제 마음대로 생활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매일 읽으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훈(11학년)



저는 어릴 때부터 극심한 강박과 불안감에 자주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큐티조차도 하지 않으면 벌을 받거나 지옥에 간다는 두려움 때문에 의무감과 불안감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큐티를 할 때 어떤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께 솔직히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몇 번 큐티를 미루거나 거리가 생겼다고 해서 절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며, 그저 제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고 제 발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될수록, 아침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불편함 없이 찾아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승(11학년)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총성/훈련/BCA: 정승락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정철 목사
- Joy/화평/성김: 박성권 목사
- 사랑/QT: 조태현 목사
- 은혜/예배: 서동민 목사
- 믿음/공동체: 조동현 목사
- 운유/말씀/QTin: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송승주 목사
- 예상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상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상채플: 이형석 목사
- 예상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아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 정티나 목사
- 영아부/아기학교: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관해 전도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상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운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는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소중한 전환점입니다. 시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선물이기에, 새해의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림으로써 삶의 주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겸허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신실한 흔적들로 향함으로써 지난 2025년은 우리의 계획을 넘어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합니다. 베델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삶 속 도전과 기쁨의 순간마다 서로를 기도로 붙들며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을 경험해 왔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맞이할 2026년이라는 새로운 소망의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지난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룩한 리셋'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다시 정렬하며, 새해의 첫 열매인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함으로써 내 힘으로 한 해를 살아내려는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삶 전체를 의탁하는 진실한 헌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의 문턱에서 모든 성도와 그 가정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부어지는 복된 시작을 함께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가장 복된 자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해의 첫 시간을 함께 시작하시기를 기쁜 마음으로 Come & See 50!

- ▶ 일시: 12월 31일(수) 오후 7시, 오후 10시 30분
- ▶ 장소 : 베델교회 본당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2,1월)	12/28:	①부-안경수	②부-안지호	③부-왕동원	④부-김지윤
	1/4:	①부-이강오	②부-정광묵	③부-이길수	④부-박세환
	1/11:	①부-윤주원	②부-김재훈	③부-황세헌	④부-나승호

헝스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12,1월)	12/27: 박기홍	1/3: 엘새	1/10: 엘새	1/17: 김정범
강단꽃(12,1월)	12/21: 윤주원, 이루이, 한보영	12/28: 류재영	1/4: 장석우	1/11: 윤주원, 이미옥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박현선(소아과), 간호사-박규희 다음주 | 의사-차계향(한외과), 간호사-박수연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성탄감사주일**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성탄감사주일입니다. 예배 후에는 코트야드 사진 부스에서 가족들이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는 베델사진관이 운영됩니다.

◆ **임직예배** 2026년에 섬길 신입 임직자들의 임직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임직 대상자들은 오늘(주일) 11시, 교회학교 체크인 부스 앞에서 모여 사역 참관을 합니다.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일시/장소/강사: 12월 21일(주일) 오후 4시 30분, 본당,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 **성탄감사예배** 12월 25일(목) 성탄절에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감사하는 성탄감사예배(Christmas Family Worship)를 오전 10시에 Bethel Grace Church와 연합으로 베델교회 본당에서 드립니다. 또한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준비한 발표회가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비전 파킹랏을 이용해 주세요. 셔틀버스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됩니다.

◆ **수요저녁예배 일정 안내** 수요저녁예배는 연말연시(12월 24일-성탄 이브, 12월 31일-송구영신, 1월 7일-엘리아 새벽기도회)동안 섬을 가지고, 새해 1월 14일(수)에 다시 드려집니다. 새해에도 모든 중심을 그리스도 한 분께 드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 **리딩지저스 모집 광고** 새해를 맞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성경읽기 '리딩지저스'(1년 1독)로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통독은 1월 5일(월) 부터 시작되며, QR 코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1월 14일(수) 수요예배 시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문의: 김진환 집사 (714)800-3968

◆ **2026 엘리아 특별새벽기도회** 2026년은 하나님이 베델에 주신 특별한 비전 'Come & See 50'으로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베델의 온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일시: 1월 2일(금)-3일(토), 1월 5일(월)-10일(토) 주중 오전 5시, 토 오전 6시

강사: 김한요 목사, 오명찬 목사, 윤대혁 목사, 이진수 목사

◆ **MY ONE PRAYER 온라인 신청** 2026년 꼭 응답받기를 원하는 한 가지 기도제목을 받습니다. 엘새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담당 목장 목회자가 기도할 것입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로 기도 제목을 적어 넣어 주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 **송구영신예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걷고 뛰었던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예배가 1, 2부로 각각 드려집니다. (7면 참고)

일시/장소: 12월 31일(수) 1부-저녁 7시, 2부-저녁 10시 30분, 본당

◆ **베델기도사역 연합기도회** 올해 마지막 연합기도회에 기도사역팀(골방기도, 레위기기도, 기도학교, 두드림, 기도편지) 모든 분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초청합니다. 연합하여 드리는 뜨거운 기도로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일시/장소: 12월 27일(토) 헵시바 예배 후 오전 7시 30분, 비전채플

문의: 양승화 집사 (714)512-1236

◆ **교회 버스 운전면허 교육 클래스 신청** 교회 차량팀에서 교회 버스 운전 봉사를 위한 버스 운전 교육 클래스를 개설합니다. 필기시험 준비부터 실기시험 교육까지 교회에서 지원하며, 선착순으로 15명을 모집합니다.

첫 모임: 1월 18일(주일) 오후 1시 / 본당 2층 컨퍼런스룸

신청: QR 코드

문의: 심진규 집사 (714)715-6308, 장항령 집사 (818)741-0408



◆ **QTin 1월호 판매** 2026년 1월 월간 국/영문 QTin 교재가 실내카페에서 판매 중입니다. 새해부터 한글 큐티인이 월간으로 전환되며 1월 10일(토)까지 홈페이지 온라인 구매에 한해 정기 구독 할인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www.qtin.org)

문의: 김연조 집사 (714)333-6724

◆ **달력** 2026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각 가정당 1개씩 코트야드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교역자 동정** 정승락 목사가 뉴저지 필그림선교교회로 이임 예정으로 사임합니다.

◆ 기도해 주세요

- BYM 중고등부 수련회가 12월 21일(주일)-23일(화)에 있습니다.
- CIM 한어중고등부 수련회가 12월 21일(주일)-24일(수)에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John Toolan 성도님(최혜자 권사의 남편)께서 12월 16일(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장은모 집사님(장덕화 성도의 부친, 장영주 권사의 시부)께서 12월 17일(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WANA(어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가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인경,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정원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HOSEA LECTURE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LAFEC-10
LOVE ALWAYS FINDS CHRIST

Give them Breasts that are Dry

(Hosea 9:6–14)

1. Do you agree with Dr. Karl A. Menninger in the sermon?

2. Organize point by point how the passage describes loss of humanity resulting from sin.
 - v.6:
 - v.7:
 - v.9:
 - v.10:
 - v.12:

3. What is the meaning of Prophet Hosea's prayer "Give them wombs that miscarry and breasts that are dry"?

4. Are there prayers that cannot be understood. Look at some examples and consider what the answer to those prayers might be.
 - 1) Prophet Elijah's prayer "O Lord, take away my life (1Ki 19)
 - 2) When people of Ninevah repented and received God's mercy, Jonah prayed "O Lord, please take my life from me" (Jon 4)
 - 3) Moses' prayer to blot out his name from God's book (Ex 32:31-32)

5. Let's reflect on the meaning of Christmas by reading reference verses and engrave it anew in our hearts. (Ref: Heb 2:18, Ge 4:10)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

■ **Song in Response:** omeone is Praying for You, All Come All Ye Faithful(Hymn 122)